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5564호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식품업계
내수불황 타개
인도서 노 젓는다
L1

삼성
이웃사랑성금
500억 기탁
L4

'세컨포레스트 : 디지털 치유정원' 팝업 스토어에 방문한 관람객들이 디지털 기술로 구현된 가상의 숲과 정원을 체험하고 있다. /두나무

가상의 숲에서 느끼는 자연… 디지털 기술로 치유 이끌다

두나무는 '세상에 이로운 기술과 힘이 되는 금융으로 미래세대를 키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ESG 경영을 위한 3가지 키워드로는 나무, 청년, 투자자 보호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전제로 블록체인,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등
두나무만의 기술력을 활용해 산림 복원, 식물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생물 다양성 보호 기금 조성, 산림을 통한 치유 프로젝트 등을 전개 중이다.
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정보와 교육에 소외됨이 없도록 하고, 가상자산 표준 룰과 건강한 투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두나무

◆NFT와 생물의 고유성·대체불가성, 기술로 연결하다

두나무는 사명에서 착안한 '나무'를 주요 ESG 키워드로 삼고 지구 생태계 보존 및 온실가스, 에너지 절감을 위한 환경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나무라는 키워드에서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기후 변화, 멸종 위기 식물에 대한 대중 인식 확대 및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한 활동들이다. 지난해 두나무는 환경부 산하 4개 기관과 함께 '기후 변화 생물 지표(Climate-sensitive Biological Indicator Species, CBIS)'를 NFT로 제작해 배포했다. 이후 환경재단·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함께 생물의 희소가치 인식 강화를 위한 '시드볼트 NFT 컬렉션'을 출시했으며, 자생 수종 보존림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활동은 NFT가 가진 고유성, 대체불가성이 식물 종의 존재 가치와 상통한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세계 유일의 야생 식물 종자 보전 시설인 한수정의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종자 금고)'에 보관된 종자 이미지를 바탕으로 NFT를 제작, 업비트 NFT를 통해 발행하는 방식이다. NFT를 보유한 홀더들이 다양한 미션을 통해 프로젝트 전반에 참여하며 조성된 기금은 실제 식물 식재로 이어진다.

두나무 관계자는 "시드볼트 NFT 컬렉션은 환경 이슈에서 기술이 '파괴'의 상징이 아닌 '보호'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대표적 선례"라며 "기술과 환경의 공영을 선도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시드볼트 NFT 컬렉션 기금을 토대로 조성된 멸종위기 희귀·자생식물 보전지 1호 개원식에서 두나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환경재단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SG 키워드 '나무'… 친환경 실천 앞장
기후변화 생물지표, NFT로 제작·배포
가상 나무, 현실로… '회복의 숲' 캠페인
디지털 치유 프로그램 '치유정원' 오픈

두나무는 지난 6월 신구대학교 식물원에 희귀·자생식물 보전지 1호를 조성하며 시드볼트 NFT 컬렉션 시즌 1을 마무리했다. 두나무의 멸종위기 희귀·자생식물 보전지 1호는 ESG의 참여 주체를 기업에서 일반 시민으로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NFT 기술의 단순 구현을 넘어 실제 환경 보호 활동으로 연결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시드볼트 NFT 보유자(홀더)들이 생물 다양성 관련 미션에 참여해 씨앗 NFT를 식물 NFT로 키우고, 이 결과에 따라 실물 보전지가 구현됐다. 3개월간 총 1만 121명이 참여하고 1278명이 최종 미션에 성공, 생태계 회복을 위한 희귀·자생식물 보전지 조성에 기여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시드볼트 NFT 컬렉션을 통한 멸종위기 희귀·자생식물 보전지 조성은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기술과 환경이 더이상 대척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고 말했다.

시즌 2에서는 디지털 디자인&아트 회사 디스트릭트와 협업, 아르떼뮤지엄 부산에 시드(SEED)관을 구현하고 프로젝트의 세계관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했다. 지난 9월 30일까지 아르떼뮤지엄 부산 시드관에서 진행됐으며, 시즌 2의 메인 테마는 '무궁화'였다. 관람객들은 다양한 미션을 통해 현장에서 관람한 디지털 아트 작품을 NFT로 바로 소장할 수 있다.

더불어 시드볼트 NFT 컬렉션 시즌 2의 일환으로 지난 8월에는 17일과 18일 이틀 간 부산 송도해수욕장에서 바다 환경 정화를 위한 플로깅을 진행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드볼트 NFT 컬렉션 바다 플로깅'을 주최해 쓰레기를 주워오면 아르떼뮤지엄 부산 입장권과 다채로운 제로웨이스트 선물을 제공하는 ESG 활동을 펼쳤다.

◆가상 나무가 현실로… 기술로 실현하는 '회복의 숲'

두나무는 '시드볼트 NFT 컬렉션'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두나무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진행한 '세컨포레스트와 함께하는 회복의 숲' 캠페인은 202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 시민 참여형 환경 보호 캠페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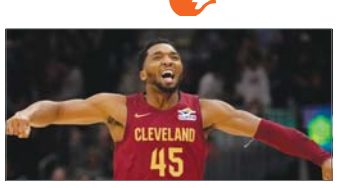
2023년에는 두나무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 내 마련된 가상의 숲에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실제 산불 피해지에 나무 두 그루가 식재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약 2만명이 참여했고, 가상의 숲에 총 1만 5000그루 나무를 심어졌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활동이 제한됐던 만큼 팬데믹 시기에 메타버스 내 심은 가상 나무를 산불 피해 지역 등에 실제 식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이다.

올해는 '세컨포레스트 : 디지털 치유정원' 팝업 스토어를 오픈해 새로운 방식을 선보였다. '세컨포레스트 : 디지털 치유정원'은 두나무만의 디지털 기술력을 활용해 탄생시킨 가상의 숲이자 치유 프로그램이다.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혁신협의체(OPSI)에서 대한민국 공공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세컨포레스트 캠페인의 리브랜딩이다.

이 대표는 "세컨포레스트의 지향점은 자연에서 사람, 사람에서 다시 자연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라며 "두나무만의 기술과 자원을 활용해 더 많은 분들에게 자연이 가진 치유의 힘을 선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버스티비 J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파리 올림픽서 최초 쓴 하산·테보고, 세계육상연맹 올해의 선수
▲NBA 클리블랜드, 보스턴 꺾고 선두 굳혀…미첼 35점 맹활약 /사진 뉴시스

▲'서울빛초롱축제', 돌아온 청계천서 '세계 4대 겨울축제' 굳히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한국 괘불의 미' 충청·서울·경기지역 발간

▲추락하는 EPL 맨시티…리버풀에 0-2로 져 7경기 무승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 김단비, 2회 연속 라운드 MVP /사진 우리은행 우리WON